

기혼남녀의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별 차이 연구*

이 하 정

서울광장초등학교

선 혜 연†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어떤 군집이 존재하는지와 각 군집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충청과 경상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 척도와 감정적 자기개방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집분석과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는데, 군집1은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높은 ‘고개방-고지지형’, 군집2는 부정적 감정의 개방이 낮고 배우자 지지가 높은 ‘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군집3은 부정적 감정의 개방이 높고 배우자 지지가 낮은 ‘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군집4는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낮은 ‘저개방-저지지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군집들은 성별과 결혼기간, 자녀유무와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4가지 군집의 도출은 우리나라 기혼자들이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다양한 군집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부부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개입할 때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별 결혼만족도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 지지, 감정적 자기개방, 군집분석, 부부 상담

* 본 연구는 이하정(2018)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혼남녀의 배우자 지지와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별 차이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선혜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415호 / Tel : 043-230-3419, E-mail : shy@knue.ac.kr

현대 사회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혈통을 중시하고 가계계승이 결혼의 목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점차 부부 사이의 애정과 만족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으며(박민자, 2004; 이삼식, 2006),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애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의 주요한 기능(홍성례, 유영주, 2000)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김현리, 2000), 최근에는 부부 간 불화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이혼 사유의 상당부분을 차지(통계청, 2016)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근 원만한 결혼생활과 친밀한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 및 부부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이나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혼과 부부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은 주로 결혼만족도, 부부친밀감, 부부적응(김희진, 2004; 모의희, 김재환, 2002; 이경희, 1995)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과 가족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개념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의 정도(정현숙, 2001)를 의미하며 결혼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지영, 2011)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결혼 및 부부관계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연구되어온 개념들은 크게

배우자 지지, 의사소통, 자기개방과 같은 관계적 변인들(김시연, 서영석, 2010; 변경애, 김순옥, 1994; 이주희, 이선화, 2015)과 갈등대처방식,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들(이정은, 이윤희, 2012; 장진경, 신유경, 2013)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배우자 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것(Cutrona, 1996)으로, 부부가 서로 지지해줄 때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어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Pasch & Bradbury, 1998),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증가(윤인지, 2016; 정문경, 김병석, 20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에게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는 부부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긴장이 생겨(Jacobson & Margolin, 1979)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자기개방은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Jourard, Lasakow, 1958)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과정(변경애, 김순옥, 1994)을 감정적 자기개방이라고 한다. 감정적 자기개방은 사랑·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자기개방과 미움·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부 상호간에 자기를 개방하는 것은 자기와 배우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고(Hendrick, 1981) 부부관계가 발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이미영, 권정혜, 2016)을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많이 개방할수록 부부의 친밀감이 높아지며(조은정, 이기학, 2002), 부부가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것(김진아, 2016)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은미와 김명자(1996)

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감정적 자기개방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긍정적·부정적 개방이 모두 높은 완전개방형과 긍정적 개방은 높고 부정적 개방이 낮은 긍정개방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적 자기개방에 이어 상대방이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지지를 보내주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친밀감이 발달하고(Reis & Shaver, 1988),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결혼생활의 만족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희숙, 박경, 2008)으로 작용하므로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은 결혼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이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방은 배우자 지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김교헌, 1992a)을 하기 때문에, 자기개방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아지며 부부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미혜, 신희천, 2009; 윤인지, 2016; Greenberg, James, & Conry, 1988). 그러나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개방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한다. 즉, 긍정적 감정에 대한 개방은 배우자 지지를 얻게 하는 것(윤미혜, 신희천, 2009)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감정의 개방은 배우자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연구(윤미혜, 신희천, 2009)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일으켜(Greenberg et al., 1988)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부부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연구들(Gottman, 1994)이 존재하여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조합이 실제 부부관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군집분석은 이와 같이 여러 변인들을 조합하였을 때 연구대상들 간에 동질적인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김민선, 서영석, 2010)으로, 연구대상들을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하위군집으로 분류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정여주, 정여진, 2013) 전체 대상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유용하다(전치혁, 2012). 따라서 군집분석을 통해 실제 기혼남녀 집단이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확인한다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해서 고려해볼 때,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높거나 낮은 군집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개방의 수준에 따라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다른 다양한 군집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집분석은 분류된 각 군집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상담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다(김명선 등, 2014; 박민지, 김계현, 2015)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변인중심 분석방법(variable-oriented analysis)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개인중심 분석방법(person-oriented analysis)인 군집분석(고경희, 정상희, 김양재, 이정운, 2015)은 부부 상담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또 다른 유용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내담자 특성에

맞춘 차별적 상담 전략을 개발하고 다각화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고, 결혼만족도를 포함한 각 군집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후 부부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을 위한 차별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남녀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하는가? 둘째, 각 군집별 특성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충청과 경상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과 결혼기간, 자녀유무 및 지역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으며 결혼기간의 경우, 유영주(1984)의 가족생활주기를 참고하여 신혼기(5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시기(6-20년), 자녀 성년기 이후 시기(21년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7년 7월에 3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구분	빈도(%)
성별	남	178(43.8)
	여	228(56.2)
결혼기간	5년 이하	135(33.3)
	6-20년	247(60.8)
	21년 이상	24(5.9)
자녀유무	없음	87(21.4)
	있음	319(78.6)
지역	서울·경기 지역	275(67.7)
	충청지역	49(12.1)
	경상지역	55(13.5)
	전라지역	15(3.7)
	기타(강원·제주지역)	12(3.0)
합계		406(100)

지역적 편의표집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416부의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여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예: 모든 문항에 같은 번호로 응답한 경우)을 제외한 총 406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IRB심의(KNUE-2017-H-00236)를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배우자 지지 척도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토대로 장춘미(2009)가 개발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김시연과 서영석(2010)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적 지지 5 문항(예,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

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정서적 지지 8문항(예,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존중감 지지 5문항(예,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준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6점 Likert 척도(1=전혀 없다~6=항상 있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정보적 지지 .937, 정서적 지지 .901, 존중감 지지 .920, 전체 .95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지 .944, 정서적 지지 .922, 존중감 지지 .924, 전체 .970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자기개방 척도

감정적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해 Balswick(1975)이 개발한 감정적 자기개방 척도(The Expression of Emotion Scale; EES)를 변경애와 김순옥(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랑(4문항)과 행복(4문항) 같은 긍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예, “매우 기쁠 때 아내에게 그런 기분을 이야기 한다”)과 미움(4문항)과 슬픔(4문항) 같은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예, “침통한 기분이 들 때 그런 기분을 아내에게 이야기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5=매우 자주 한다)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감정적 자기개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경애와 김순옥(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적 감정의 자기개방 .859,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 .76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의 자기개방 .918,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 .906, 전체 .924이었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하고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우리나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를 국성민(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적인 부부관계 9문항(예, “배우자와 나는 사이가 좋다”),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6문항(예, “나의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7문항(예,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성민(200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애정적인 부부관계 .885,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821,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863, 전체 .941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인 부부관계 .938,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906,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917, 전체 .96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도구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후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배

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분류되는 군집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배우자 지지 및 감정적 자기개방의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사랑, 행복, 미움, 슬픔의 7가지 변인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의 방법을 사용해 대략적인 군집의 수를 정하였으며, 이후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넷째, 각 군집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군집별로 χ^2 (Chi-square) 검정을 통해 성별과 결혼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인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먼저 배우자 지지는 감정적 자기개방($r=.491, p<.01$) 및 감정적 자기개방의 구성요인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미움($r=.205, p<.01$)이나 슬픔($r=.342, p<.01$)

표 2.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937**	-											
3	.971**	.856**	-										
4	.954**	.844**	.899**	-									
5	.491**	.434**	.501**	.462**	-								
6	.507**	.475**	.503**	.469**	.824**	-							
7	.569**	.523**	.576**	.519**	.845**	.822**	-						
8	.205**	.149**	.220**	.208**	.785**	.382**	.426**	-					
9	.342**	.286**	.355**	.329**	.862**	.519**	.541**	.808**	-				
10	.747**	.676**	.732**	.727**	.380**	.486**	.518**	.031	.216**	-			
11	.783**	.708**	.771**	.757**	.445**	.552**	.569**	.086	.260**	.959**	-		
12	.694**	.637**	.675**	.673**	.359**	.461**	.490**	.021	.209**	.945**	.880**	-	
13	.618**	.550**	.605**	.611**	.250**	.341**	.386**	-.034	.128**	.923**	.808**	.811**	-
M	4.424	4.263	4.038	4.396	3.316	3.259	3.626	3.247	3.132	3.461	3.493	3.472	3.411
SD	19.840	6.230	8.543	5.896	11.452	3.487	3.510	3.415	3.403	19.576	8.277	5.821	6.650

주. ** $p<.01$

주. 1 배우자 지지 전체 2 정보적 지지 3 정서적 지지 4 존중감 지지 5 감정적 자기개방 전체 6 사랑 7 행복 8 미움 9 슬픔 10 결혼만족도 전체 11 애정적인 부부관계 12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13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같은 부정적 감정 보다는 사랑($r=.507, p<.01$)이나 행복($r=.569, p<.01$) 같은 긍정적 감정 개방과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도($r=.747, p<.01$) 및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 중 애정적인 부부관계($r=.783, p<.01$)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는데, 특히 배우자 지지의 구성요인 중 정서적 지지($r=.771, p<.01$) 및 존중감 지지($r=.757, p<.01$)와 애정적인 부부관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자기개방과 결혼만족도($r=.380, p<.01$)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적 자기개방($t=-5.263, p<.001$) 및 감정적 자기개방의 구성요인인 행복($t=-2.843, p<.01$), 미움($t=-7.881, p<.001$), 슬픔($t=-6.998, p<.001$)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인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t=2.305, p<.05$)에서는 남성이 여

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 분석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을 기준으로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우자 지지 및 감정적 자기개방의 하위요인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의 방법을 이용해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3개, 4개 또는 7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앞서 제안된 군집의 수를 각각 설정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해석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최종 군집별 중심점이 나타났으며, 군집 1은 111명(27.3%), 군집 2는 139명(34.2%), 군집 3은 91명(22.4%), 군집 4는 65명(16.0%)이 배정되었다.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고개방-고지지형 (n=111)	부정감정 저개방- 고지지형 (n=139)	부정감정 고개방- 저지지형 (n=91)	저개방-저지지형 (n=65)
사랑	.96919	-.13160	-.11702	-1.20982
행복	.98876	-.07347	-.17133	-1.29154
미움	.88211	-.57785	.41550	-.85237
슬픔	1.04110	-.50872	.22223	-1.00112
정보적 지지	.77111	.50867	-.84920	-1.21571
정서적 지지	.86131	.44387	-.80190	-1.29740
존중감 지지	.81338	.45318	-.80035	-1.23762

주. 최종 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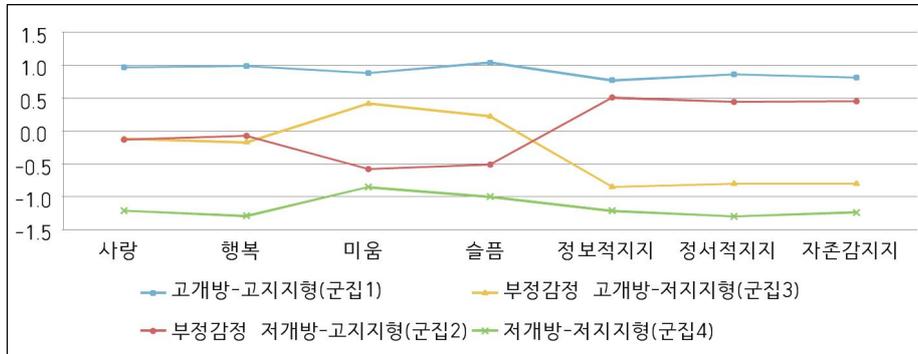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그림 1은 군집별 표준화 점수를 이용한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의 군집 프로파일이다. 군집 1은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높아 ‘고개방-고지지형’이라 명명하였고, 군집 2는 평균보다 낮은 부정적 감정의 감정적 자기개방과 평균보다 높은 배우자 지지의 특성을 보여 ‘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은 평균보다 높고 배우자 지지는 평균보다 낮아 ‘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군집 4는 감정적 자기개방 및

배우자 지지가 모두 낮아 ‘저개방-저지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른 군집별 특성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먼저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각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48.9%),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

표 4. 성별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고개방- 고지지형	군집2 부정감정 저개방- 고지지형	군집3 부정감정 고개방- 저지지형	군집4 저개방- 저지지형	$\chi^2(df)$
	명(%)	명(%)	명(%)	명(%)	
남 (n=178)	25(6.2)	87(21.4)	34(8.4)	32(7.9)	42.653*** (3)
여 (n=228)	86(21.2)	52(12.8)	57(14.0)	33(8.1)	
전체 (n=406)	111(27.3)	139(34.2)	91(22.4)	65(16.0)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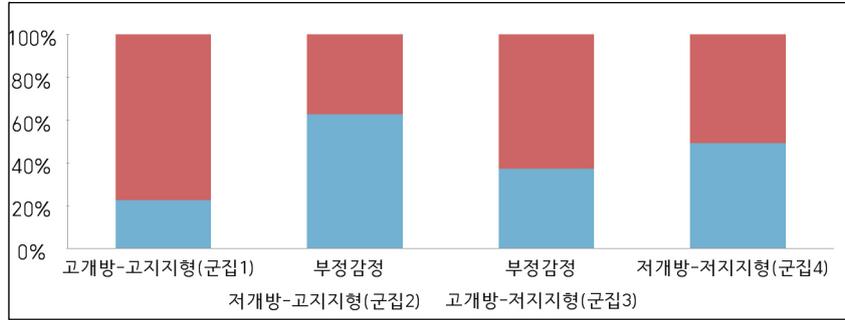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군집의 인원분포

형, 19.1%),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18.0%),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1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37.7%),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25.0%),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22.8%),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군집들 간의 χ^2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 = 42.653, df=3, p=.000$)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은 다른 군집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는 다른 군집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표 5와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기간에 따른 군집의 인원분포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41.5%),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32.6%),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18.5%),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7.4%)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결혼기간이 6-20년인 경우에는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

표 5. 결혼기간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chi^2 (df)$
		고개방-고지지형	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저개방-저지지형	
		명(%)	명(%)	명(%)	명(%)	
결혼 기간	5년 이하 (n=135)	56(13.8)	44(10.8)	25(6.2)	10(2.5)	30.039*** (6)
	6-20년 (n=247)	53(13.1)	83(20.4)	59(14.5)	52(12.8)	
	21년 이상 (n=24)	2(0.5)	12(3.0)	7(1.7)	3(0.7)	
전체 (n=406)		111(27.3)	139(34.2)	91(22.4)	65(16.0)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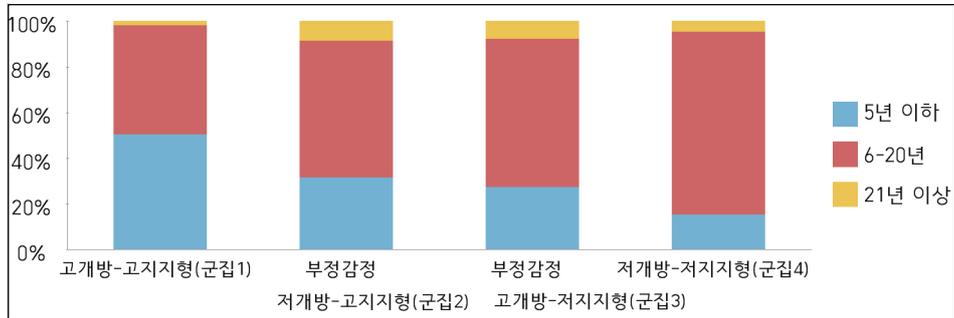


그림 3. 결혼기간에 따른 군집의 인원분포

지지형, 33.6%),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23.9%),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21.5%),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21.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결혼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50.0%),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29.2%),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12.5%),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8.3%)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결혼기간과 군집 간의 χ^2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0.039$, $df=6$, $p=.000$).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에서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았고,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에서는 결혼기간이 6-20년인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6과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유무에 따른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43.7%),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27.6%),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19.5%),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9.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표 6. 자녀유무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고개방- 고지지형	군집2 부정감정 저개방- 고지지형	군집3 부정감정 고개방- 저지지형	군집4 저개방- 저지지형	χ^2 (df)
		명(%)	명(%)	명(%)	명(%)	
자녀 유무	없음 (n=87)	38(9.4)	24(5.9)	17(4.2)	8(2.0)	15.861** (3)
	있음 (n=319)	73(18.0)	115(28.3)	74(18.2)	57(14.0)	
전체 (n=406)		111(27.3)	139(34.2)	91(22.4)	65(16.0)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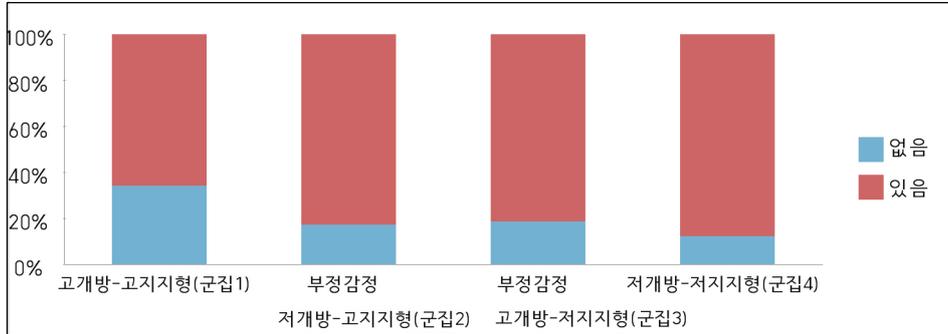


그림 4. 자녀유무에 따른 군집의 인원분포

36.1%),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23.2%),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 22.9%),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 17.9%)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자녀유무와 각 군집 간의 χ^2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 = 15.861, df=3, p=.001$)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에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결혼만족도의 차이

분류된 군집들이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7에 제시한 바

표 7. 군집별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사후검정
	고개방-고지지형	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	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	저개방-저지지형		
	M(SD)	M(SD)	M(SD)	M(SD)		
결혼만족도	4.033 (.667)	3.756 (.700)	2.939 (.731)	2.584 (.716)	83.614***	1>2>3>4
애정적인 부부관계	4.165 (.646)	3.792 (.658)	2.928 (.710)	2.496 (.744)	112.445***	1>2>3>4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4.053 (.748)	3.767 (.811)	2.941 (.823)	2.590 (.812)	65.953***	1>2>3,4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3.846 (.857)	3.701 (.811)	2.951 (.885)	2.692 (.772)	40.889***	1,2>3,4

주.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문항들은 역채점 하였음.

주. *** $p < .001$

주. 1=군집1, 2=군집2, 3=군집3, 4=군집4

와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결혼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 중 애정적인 부부관계는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이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보다,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가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보다,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이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은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이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에 비해,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가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과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과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가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과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고, 각 군집별로 성별과 결혼기간, 자녀유무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배우자 지지, 감정적 자기개방,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는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 및 존중감 지지와 애정적인 부부관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아지며(정문경, 김병석, 2014; Cutrona, 1996),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정서적 지지(Cramer, 2006; Cutrona, 1996)이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나 존중감 지지가 많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진다(김시연, 서영석, 2010; 이윤로, 유시순, 2004; 이지민, 2015; 장춘미, 2009; 조병은, 신화웅, 1999; 최규련, 1988; 홍성례, 유영주, 2000)는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는 다른 어떤 사회적 지지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지민, 2015)을 고려할 때, 부부교육과 부부상담에서 배우자 지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지지 및 존중감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고개방-고지지형’으로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가 모두 높은 집단이며 군집 2는 ‘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으로 평균보다 낮은 부정적 감정 개방과 평균보다 높은 배우자 지지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와는 반대로 군집 3은 부정적 감정 개방이 평균보다 높고 배우자 지지는 평균보다 낮은 ‘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이며,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저개방-저지지형’으로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 모두 낮은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방은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김교현, 1992a; 김규리, 2016; 윤미혜, 신

희천, 2009; 윤인지, 2016;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이 높은 군집 1의 경우 높은 배우자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감정적 자기개방이 낮은 군집 4는 배우자 지지 또한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김교현(1992b)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개방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상대에 대한 연민과 함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반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 상대방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개방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거나(Coates & Winston, 1987),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박은주, 정혜숙, 2013; Gottman, 1994; Hendrix, 1988)는 연구 결과와 같이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이 높은 군집 3은 배우자 지지가 평균보다 낮고 부정적 감정의 자기개방이 낮은 군집 2는 배우자 지지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자기개방이 높으면서 배우자 지지가 낮은 군집이나 감정적 자기개방이 낮고 배우자 지지는 높은 군집,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자기개방이 높으면서 배우자 지지도 높은 군집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분류된 군집들의 특성을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은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네 군집 중 가장 높은 유형이다. 이는 자기개방이나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박은주, 김병석, 2013; 이정은, 이윤희, 2012)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 개방이 모두 높은 사람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정은미, 김명자, 1996), 배우자 지지가 높을

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장춘미, 2009; 정문경, 김병석, 2014; 차연실, 2003)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에서는 다른 군집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양육방식 속에서 자라며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보다 감정 표현에 대해 덜 제약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감정표현에 능숙하기(김규리, 2016)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정 개방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규리, 2016; 이미영, 권정혜, 2016; 조은정, 이기학, 2002)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적인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 1(고개방-고지지형)은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들과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결혼초기인 신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하나의 부부로서 안정된 관계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김민녀, 채규만, 2006; 김선주, 박정윤, 2013; 김희진, 2005)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며(Berger & Kellner, 1964),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배우 적극적인 자기개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없어 다른 시기에 비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서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결혼생활의 시작점으로, 이 시기의 결혼생활의 질이 이후의 결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박수선, 2013; 임현선, 박정윤, 2015)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기개방과 지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그러한 적응적인 요인들을 결혼생활동안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긍정적인 자원에 초점을 두어 그것들을 더욱 지지하고 강화하여 바람직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집 2(부정감정 저개방-고지지형)는 낮은 부정적 감정의 개방과 높은 배우자 지지 및 평균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들의 성역할 기대나 자아존중감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데(최명식, 1995), 강인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남성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남성성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 남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 하거나 부정하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어(Jakupcak, Tull, & Roemer, 2005; Thompkins & Rando, 2003),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감의 상실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욱 독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Prager

& Buhrmester, 1998),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는 것은 쉬운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방이 평균보다 높고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으로, 특히 슬픔에 대한 개방보다는 미움에 대한 개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소 배우자에게 슬프고 울적한 기분보다 강한 화의 감정을 주로 표현하며,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미움이 생겼을 때 이를 그대로 표출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움이나 화와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은 조절되지 못한 채로 표현되기 쉬우며, 조절되지 못한 강한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Gottman, 1994). 실제로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개방하는 부부는 갈등해결전략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통제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며(남영이, 1999), 부부 상담에서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배우자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경쟁적 상호작용을 만성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유은희, 1994)를 볼 때,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에 해당하는 부부들은 부부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은희(1994)의 연구에서 부부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욕이 많고 치료적 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부부들 중 경쟁적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내담자 유형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부부 상담에서는

이들에게 분노나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그러한 감정을 조금 더 적응적인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시키고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군집 4(저개방-저지지형)는 감정적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다른 군집들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유형으로, 결혼기간이 6-20년인 부부 및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유영주(1984)의 가족생활주기 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부부들로, 이때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와 경제적 문제, 자녀와 부부 사이의 삼각관계 문제 등(정문자, 김연희, 2000)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크고 부부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8; 서미아, 2014; 정문자, 전영주, 김수지, 정수빈, 2010)이다. 그러나 부부의 관심이 부부보다는 자녀에 집중되면서 점차적으로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노력들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박정운, 2015), 그로 인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교류가 줄어들거나 단절될(정문자, 김연희, 2000; Sheehy, 1976)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혼만족도가 네 군집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결혼생활에 대한 심리적·관계적 어려움이 클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군집 3(부정감정 고개방-저지지형)과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침묵하게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냉전 상태에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서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혼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떨어뜨리는 것(Ben-Ari & Lavee, 2011)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억압하면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권윤아, 김득성, 2011), 회피적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부적 영향을 주는 것(김영환, 장문선, 2002; Christensen & Shenk, 1991)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담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안종화(2016)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방문 가족상담 서비스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가족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역할을 강화하고, 직장이나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가족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이들에게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시켜준다면 이들의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 상담 연구 및 실제에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배우자 지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배우자 지지와 감정적 자기개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부의 결혼생활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배우자 지지 연구는 주로 임신 중인 여성

이나 환자, 혹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배우자 지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감정적 자기개방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추후 부부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의 군집별 상담개입전략을 차별화하고 다각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실제적 의의를 제공한다는 실제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 연구 대상자의 표집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여성 참여자가 더 많으며 결혼 기간에 있어 각 연령대별 연구 대상을 고르게 표집하지 못했다는 점, 부부를 하나의 쌍으로 표집 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경험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으나 부부친밀감이나 부부갈등과 같이 부부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4가지 군집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추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경희, 정상희, 김양재, 이정윤 (2015). 취업모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군집유형과 일-가족 다중역할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503-521.
- 국성민 (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아, 김득성 (2011).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7), 67-80.
- 김교헌 (1992a).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81-107.
- 김교헌 (1992b). 친교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11(1), 196-222.
- 김규리 (2016). 성인 초기 연애관계에서 파트너 관련 부정적 감정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파트너 반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심리장애 진단아동의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33(4), 675-696.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 김선주, 박정윤 (20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9-37.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영환, 장문선 (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21(2), 331-347.

- 김진아 (2016).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리 (2000). 부부조화 측정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남영이 (1999).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학생생활상담, 18(1), 5-36.
- 모의회,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 박민자 (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민지, 김계현 (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수선 (2013).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85-98.
- 박운주, 김병석 (2013).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 효과. 상담학연구, 14(5), 2945-2967.
- 박은주, 정혜숙 (2013). 성인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복지상담학연구, 7(1), 1-18.
- 박정윤 (2015). 가족생활주기별 부부관계신념 지각, 유사성, 적용이 부부간 긍정적 행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2), 335-362.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경애, 김순옥 (1994).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93-103.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8).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서미아 (2014). 중년기 부부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343-354.
- 안중화 (2016). 사례를 통해서 본 방문 가족상담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제언. 가족과 상담, 6(1), 87-107.
- 여성가족부 (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6-2020). 서울: 여성가족부.
- 유영주 (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유은희 (1994). 상담가족에서의 부부갈등의 원인지각과 상호작용 형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 77-88.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 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3(4), 235-249.
- 이미영, 권정혜 (2016).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4(4), 529-552.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윤로, 유시순 (2004).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1), 1-21.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이정은, 이윤희 (2012).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6), 2543-2555.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주희, 이선화 (2015).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41-657.
- 이지민 (2015).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7(4), 112-136.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3(3), 671-689.
- 임지영 (2011). 기혼 여성의 부부간 공정성 인지 및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선, 박정운 (2015). 결혼초기 부부의 부부관계신념 지각과 적용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1), 135-156.
- 장진경, 신유경 (2013).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09-126.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치혁 (2012).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응용. 서울: 한나래출판사.
- 정문경, 김병석 (2014). 마인드풀니스, 정서조절,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5(1), 499-519.
- 정문자, 김연희 (2000). 가족생활주기별 내담자의 문제와 가족치료기법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8(1), 3-29.
- 정문자, 전영주, 김수지, 정수빈 (2010).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갈등주제,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 및 조망수용. *상담학연구*, 11(3), 1305-1324.
- 정여주, 정여진 (2013).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에 따른 군집분석과 남녀 비교. *상담학연구*, 14(5), 2925-2943.
- 정은미, 김명자 (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개방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 39(11), 89-106.
- 조병은, 신화용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조은정, 이기학 (2002). 이성교제 관계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417-423.
- 차연실 (2003).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우자 지지의

-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식 (1995). 남성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2016년 인구동향조사: 이혼사유별 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 홍성례, 유영주 (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Balswick, J. (197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scale and an expression of emotion scal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9(1), 140-146.
-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 Berger, P. L., & Kellner, H. (1964).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Diogenes*, 12(46), 1-24.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3), 458-463.
- Coates, D., & Winston, T. (1987). The dilemma of distress disclosure. In V. J. Derlega & J. H. Berg (Eds.), *Self-disclosure* (pp. 229-256). New York: Plenum Press.
- Cramer, D. (2006). How a supportive partner may increase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1), 117-131.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Erlbaum.
- Greenberg, L. S., James, P. S., & Conry, R. F. (1988). Perceived change in couples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 5-23.
- Hendrick, S. S. (1981).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6), 1150-1159.
- Hendrix, H. (1988).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 New York: Henry Holt & co.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Routledge: Psychology Press.
- Jakupcak, M., Tull, M. T., & Roemer, L. (2005). Masculinity, shame, and fear of emotions as predictors of men's expressions of anger and hostility.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6(4), 275-284.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6(1), 91-98.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66(2), 219-230.
- Prager, K. J., & Buhrmester, D. (1998). Intimacy and need fulfillment in couple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4), 462-467.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 367-389).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 Sheehy, G. (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Dutton.
- Thompkins, C. D., & Rando, R. A. (2003).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in college me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4(1), 79-81.

원 고 접 수 일 : 2018. 02.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4. 01

게 재 결 정 일 : 2018. 05. 24

Th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luster Types Based on the Spousal Support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f Married Men and Women

Ha-jung Lee

Seoul Kwangjang Elementary School

Hye-yon Se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pousal support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f married men and wome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06 married men and women nationwide, and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a posteriori test were carried out.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suggested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Cluster 1 was termed the 'high disclosure-high support type,' Cluster 2 was termed the 'low negative emotional disclosure-high support type', Cluster 3, the 'high negative emotional disclosure-low support type', and Cluster 4, the 'low disclosure-low support typ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revealed from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clusters based on gender, marriage duration, child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pousal support, emotional self-disclosure, cluster analysis, marital counseling